

지역분류	미주 / 미국
보도일/기관명	2017. 1. 23.(월) / FierceWireless
제 목	FCC 의장으로 Ajit Pai 선출 및 데이터요금 면제 정책 준비
출처(URL)	<a href="http://www.fiercewireless.com/wireless/trump-to-tap-pai-as-fcc-chair-paving-way-for-zero-rated-data">http://www.fiercewireless.com/wireless/trump-to-tap-pai-as-fcc-chair-paving-way-for-zero-rated-data</a>

**【 개 요 】**

- 트럼프 행정부는 Tom Wheeler에 이은 신규 FCC 의장으로 Ajit Pai를 선출하고 데이터요금 면제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밝힘

**【 주요내용 】**

- Politico는 오바마 행정부의 교체와 함께 사임을 발표한 Tom Wheeler 전 FCC의장에 대한 차기 의장으로 Ajit Pai를 지목한 언론 중 하나로,
  - FCC와 백악관에서의 특별한 공식 성명은 없었으나 Wheeler 전 FCC 의장과 Mike O'Rielly 상임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Pai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달함
- Verizon의 변호사로 근무했던 Pai는 2012년 FCC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Whller 의장 시절 민주당의 의견에 주요 의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함
  - 공화당으로서 Pai의 차기 행보를 예측해보면 무선통신사업자 및 기타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는 망중립성 정책의 철회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
- Pai는 통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반대했으며 특정 콘텐츠 접속을 위해 과금하지 않는 데이터요금 면제 정책을 반대하는 FCC의 의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고 CCS는 언급함
  - 데이터요금 면제 전략은 이동통신사와 경우에 따라 유선통신사가 자신이나 협력업체의 특정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을 허용하게 함
  - 새로운 FCC의 리더십하에 망 중립성에 대한 잠재적인 희석이 가능하며, 통신사업자들이 콘텐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해왔다면, 좀 더 적극적인 것이라고 언급함
- 사실상 작년 미국 사업자들 사이의 핵심 전략으로 데이터요금 면제 모델이 등장하였음
  - Verizon은 자사의 Go90 모바일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요금 면제 콘텐츠를 도입하고 자사의 NFL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콘텐츠를 스트리밍하여 구축하였음
  - Sprint는 여름에 개최된 Copa América Centenario 축구 경기를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며,
  - 2016년 가장 공격적인 형태를 취한 AT&T는 DirecTV에서 무선 고객들에게 데이터요금 면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후 11월에 출시한 크로스 플랫폼 OTT 비디오 서비스인 DirecTV Now를 통해 연장하였음.
- 이러한 모델들은 2014년 Music Freedom을 제공하고 2015년에 Binge On with Video를 제공한 초기 T-Mobile의 노력을 통해 확장되었음
- FCC는 1월 초 AT&T의 DirecTV와 Verizon의 Go90는 각각의 이통사들이 자사의 콘텐츠를 별다른 과금 없이 다른 콘텐츠 공급자보다 유리하게 제공하는 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위반행위라고 비난하였으며, Pai 의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투자와 혁신에 해를 끼쳤다고 지적함
  - Pai 의장은 또한 스펙트럼 공유 및 고주파수 대역에 서비스를 배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FCC에서 무선 사용을 위한 주파수 규제 해지를 촉구함

**↑ 목차로 이동**